

TV 드라마 속의 도서관과 사서

김수형(동명대학 도서관 사서 · SADRAINI@chollian.net)

한국경제신문 1999년 8월 4일자에 “드라마 주인공은 무늬만 전문직”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TV 드라마에 전문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제의 전문직 모습과는 크게 왜곡·묘사되고 있다는 것으로 당시 SBS 월화드라마 ‘고스트’에서의 파대학의 의대생들이 부검실습을 할 때 수술장갑도 끼지 않는다거나, MBC 아침드라마 ‘아름다운 선택’의 주인공인 일간지 여기자가 선배 여기자를 공식석상에서 예사로 “언니”라고 호칭하는 점, SBS 드라마 ‘해피투게더’에서는 검사들이 일은 별로 안하고 주로 놀러다니는 장면만을 보여준 것을 예로 들었다. 기자는 “이 같은 일들은 ‘전문직’이 단순히 주인공을 치장할 장식적인 도구로만 사용되는데서 비롯된다. 물론 ‘직업드라마’가 아닌 이상 드라마에서 특정 직업의 세부 디테일까지 기대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방송사 설명대로 극적재미를 위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전문직의 생활을 자유자재로 왜곡하는 것은 제작진의 성의부족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TV 드라마에서 종종 비춰지는 도서관이나 사서 또한 실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드라마 제작자의 ‘충분한 사전조사 없는 전문직의 생활’의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반영한 결과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사서의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서가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드라

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이 사서임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서의 대출·반납이나 책을 서가에 배열하는 등의 피상적인 장면을 선호한다. 특정 직업 하면 떠오르는 가장 단면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그 인물의 직업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대출이나 배열만 하는 드라마 속의 사서의 기계적인(?) 모습이 아쉽긴 하나 이러한 묘사는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 혹은 소품 따위로 가볍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MBC TV의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의 스승으로 나온 유의태가 실제로는 허준보다 후대의 실존인물이었으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작가의 상상력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물론, 드라마를 통해 허준의 스승이 유의태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들이 더 많다면 문제겠지만.) 다만 TV 방송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대중매체이므로 만에 하나 허구의 드라마에서 도서관의 기능이나 사서직의 모습을 크게 왜곡하여 현실의 대중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서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몇 년간 방영된 TV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도서관이나 사서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자주인공의 직업이 사서인 경우로, 도서관 업무를 매개로 사랑이 시작된다. 둘째, 도서관에서 신문기사 또는 자료를 찾거나, 자료를 통해 극의 흐름이 반전되는 경우이다. 셋째, 단역급 인물이 일상생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대부분 일반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에스터데이 (MBC TV 1997. 7. 19 - 10. 5)

1997년 방영된 주말연속극 ‘에스터데이’에서 승혜(김소연 분)는 도서관에서 옛날 자료를 찾아보고 영호(이종원 분)의 부모님을 차로 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박근형 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하철 치한에 관한 한 보고서

(MBC TV ‘베스트극장’ 1998. 2. 20)

정수(김혜수 분)는 지하철의 치한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으로 매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치한들을 관찰한다. 어느 날 정수는 교수의 심부름으로 도서관의 도서관에 마이크로피쉬를 신청하러 간다. ‘참고사서’라는 커다란 안내판을 앞에 둔 젊은 남자는 통명스런 표정으로 “한번도 신청 안해봤어요? 신청서부터 작성해주세요”라고 지시한다. 테이블에 앉아 신청서를 쓰고 있는 도중에, 어디선가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 하품을 하며 나타난다. 정수는 이 중년의 사서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머릿결을 탐닉하던 바로 그 남자임을 알고는 놀라게 된다. 사서가 치한이었다는 사실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드라마의 주제는, 우리 주위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보통사람이 바로 치한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서관에 간 승헌 (MBC TV ‘남자 셋 여자 셋’

1998. 2. 23 - 25)

시트콤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남자 셋 여자 셋’은 1998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부작 특집 “도서관에 간 승헌”편을 방영했다. 이 드라마는 대학생인 승헌(송승헌 분)이 여자친구인 의정(이의정 분)을 두고 미모의 대학도서관 사서인 수정(김지연 분)에게 잠시 한눈을 팔았다

가 다시 의정에게 되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승헌이 수정과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은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는 ‘전형적’인 장면에서이다. 공군사관학교를 배경으로 한 ‘창공’ (KBS 2TV 1994. 10. 12 - 1995. 1. 8)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설정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승헌이 수정에게 말을 걸기 위해 “책을 좋아하시나봐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이라고 질문한 점, 승헌이 서가배열을 도와주는 장면 등이 사서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라 할 수 있다. “서정시대” (KBS 2TV ‘드라마시티’ 2000. 6. 28)에서도 시립도서관 사서인 연옥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가배열을 하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되었다.

애드버킷 (MBC TV 1998. 11. 9 - 12. 28)

1998년 말에 방영된 애드버킷은 한 젊은 사법연수원생이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맞서면서 겪는 갈등과 좌절을 통해 한층 성숙한 법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였다. 극중 은지(이영애 분)는 신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학교 (KBS 2TV 1999. 2. 22 - 4. 13)

‘학교’는 체벌, 입시, 이성교제, 왕따 등 교육현장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연출하여 크게 주목받은 드라마이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는 장면 등이 가끔씩 비쳐졌다.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에서는 도서관이 무대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끼’ (KBS 2TV 1999. 10. 21 - 2000. 1. 13), ‘KAIST’ (SBS TV 1999. 1. 24 -)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 전쟁 (MBC TV 1999. 7. 12 - 1999. 9. 7)

남녀간의 결혼생활을 코믹하게 그렸던 미니시리즈 '마지막 전쟁' 1부에서는 태경(강남길 분)과 지수(심혜진 분)의 학창시절이 그려졌는데, 태경이 지수를 위하여 새벽부터 대학도서관의 일반열람실 좌석을 맡아두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편, 일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학생 인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태는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일반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행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례들로는 '보고 또 보고' (MBC TV 1998. 3. 3- 1999. 4. 2), '맨발로 뛰어라' (MBC TV 1998. 8. 17 - 9. 8),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MBC TV 1999. 1. 27 - 6. 24), '장미와 콩나물' (MBC TV 1999. 3. 13 - 9. 5), '날마다 행복해' (MBC TV 1999년 10. 11 - 2000. 4. 21) 등 부지기수이다.

안녕 내 사랑 (MBC TV 1999. 9. 1 - 10. 21)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연주(김희선 분)는 도서관에서 백혈병과 암에 관한 자료를 찾는다. 자신의 생존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고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해뜨고 달뜨고 (KBS 1TV 1999. 10. 18 - 2000. 4. 28)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된 '해뜨고 달뜨고'의 여자주인공 박영주(유호정 분)의 극중 직업은 대학도서관 사서였다. 이 드라마의 사서들은 자료실에서 무분별한 잡담 및 사적 통화 장면을 빈번하게 보여주어, 실제 사서들이 PC통신이나 KB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

기도 했다. 또한 '재고관리' (장서점검), '벌금' (연체료) 등의 도서관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사서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장면 등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설정이었다.

기억의 주인 (SBS TV '러브스토리' 2000. 1. 26 - 27)

미니시리즈 '러브스토리'의 마지막 편인 "기억의 주인"에서 프리랜서 PD인 영석(김태우 분)은 죽은 옛 애인이 좋아하던 시집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사서인 세원(박상아 분)에게 시 한 구절을 읊어주고 이 시가 실린 시집을 찾을 수 있느냐고 의뢰한다. 세원은 시집을 찾아주고, 영석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다. 이후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영석은 세원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가깝게 된다.

빛나간 잔소리 (MBC TV '세 친구' 2000. 9. 18)

성인시트콤을 표방하는 MBC TV '세 친구'의 '빛나간 잔소리' 편에서 상면(박상면 분)은 도서관 사서 경미(나경미 분)과 사귀게 된다. 경미는 말이 없고 시끄러운 건 질색인 성격이어서 상면은 경미를 만날 때면 자신도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등 경미를 닮아가고 나중에는 서로 무언의 대화만으로 통할 정도가 된다.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어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조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설정인데, 다소 희화화된 점이 없진 않지만 시트콤 드라마는 극도로 과장된 표현을 즐기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